

지역 소식통

고규홍 작가와 숲의 도시

정읍의 인문학적 재발견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나무의 언어로 읽는 삶의 지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일 첫 강의를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숲과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탐색하는 심화 과정 강연으로 마련됐다. 특히 회차별로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유롭게 합류할 수 있다.

강의를 맡은 고규홍 작가는 국내 대표 나무 칼럼니스트로, 오랜 시간 집국의 노거수와 마을 숲을 기록하며 나무에 담긴 역사와 문화,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기자 생활을 거쳐 천리포수목원에 머물며 나무의 세계에 들어섰고 이후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글과 책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내장산국립공원을 품은 정읍의 지역적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숲의 도시 정읍'의 가치를 인문학적으로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업인대학

교육성과 경진대회 개최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및 가공실에서 2026년 농업인대학 교육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학습성과와 현장활동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22기 농업인대학 교육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경진대회는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들로 솟츠 콘텐츠 제작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식개발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교육성과 발표 등 3개분야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 개관

정읍시, 전시·공연·체험 복합문화공간 18일부터 운영... 체류형 관광 거점 육성

정읍시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꾸민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 재개관식을 오는 17일 열고 18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17일 달하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재개관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행사를 기념해 정읍시 홍보대사인 가수 박창근이 출연하는 '달하음악정원 가요콘서트'도 열려 방문객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새롭게 바뀐 가요전시관은 총 20억 원(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꾸몄다. 내부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이를 궁중 기악으로 전승한 수제전을 주제로 한 '정읍사' 전시실, 우리 가요의 변천사를 다루는 '달하악당(樂堂)' 전시실로 나뉜다.

관람객은 다채로운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정읍사의 역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한국 가요의 흐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전시관 주변 수국정원에는 여러 색깔의 수국이 꽃을 피워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감상한 뒤 만개한 꽃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재개관으로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널리 알리겠다"며 "한국가요촌 달하를 정읍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문화광장 내장산귀갑약수, '생활용수 전용' 전환 가동

'천사히어로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명칭 변경... 문화광장 찾는 시민 위해 일 최대 200톤 공급

정읍시가 8일부터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서 음용수로 공급했던 내장산귀갑약수를 생활용수 전용으로 전환해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문화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설의 목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전 이름인 '내장산귀갑약수'를 '천사히어로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바꾸고 관련 안내판 정비를 마쳤다.

새단장한 급수시설은 지하 204m 깊



이에서 물을 끌어올려 연간 약 7만 3000톤, 하루 최대 200톤의 용수를 공급한다. 한 번에 최대 1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평상시에는 방문객 편의 시설로 쓰이고,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시민 기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식기 세척, 세탁, 청소,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음용수(마시는 물)나 음식 조리용으로는 쓸 수 없어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주요 농작물 병해충 선제적 방제 '순항'

올해 총 3억5290만원 사업비 투입... 농가 피해 최소화 총력

고창군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3억52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협의회'를 열고 돌발해충, 탄저병, 토마토블라방, 무배추 뿌리혹병 등의 방제 약제를 선정해 농가에 사전공급을 완료했다.

특히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이자 발생 시 과원 폐원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선제적인 약제 지원과 상시 예찰을 통해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미발생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와 연계해 병해충예찰방제단을 꾸려 현장 예찰과 병해충 방제 기술 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 해충 토마토블라방 발생 농가를 찾아 피

해상황을 확인하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했다.

토마토블라방은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잎과 줄기, 열매 내부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중 발생할 위험이 높아 철저한 방제와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군은 장마철 유의해야 할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농가별 맞춤형 현장 지도를 강화해 방제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순환버스 운행 시작

운곡습지→고인돌유적 탐방 동선... 평일 편도 4회·주말 7회 운영

고창군이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더욱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순환버스는 운곡습지 주차장(운곡서원길 15)과 고인돌박물관 주차장(고인돌공원길 75)을 연결한다. 평일에는 편도 4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편도 7회 운행된다.

탐방객들은 운곡습지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한 뒤 순환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다.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탐방 동선이 마련됨에 따라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연계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버스는 오는 8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된다. 버스 내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탐방객들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버스 외관은 운곡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수채화 감성으로 표현해 친근함을 더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상영해 이동 시간 동안 고창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탐방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보다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문객 중심의 탐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토·일요일 도자기 프리마켓 운영

부안청자박물관서 9월까지 격주로 지역 도예인·관광객 소통

부안군은 지역 도예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근 부안청자박물관 광장에서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주말, 도자기 프리마켓'의 첫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안도예가협회 소속 지역 도예인들이 참여해 생활자기와 생활소품, 공예품 등 다양한 도예 작품을 전시·판매했으며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작품에 담긴 제작 과정과 창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물레 시연과 도예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통 도예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문 화장터로 운영되어 부안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부안청자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와 현대



도예가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도예인들에게는 작품 홍보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프리마켓은 오는 9월까지 격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안청자박물관 광장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도예인의 창작활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안청자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이어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